

한국에 PK 주어졌다면 상황 180도 달라졌을 것



올림픽 축구 준결승 브라질에 0-3 완패
‘심판 불운’·골키퍼 정성룡 부상에 눈물
외신들 “주심, 한국에 페널티킥 줘야야”

두 번의 페널티킥 찬스가 있었다. 체코인 주심 파벨 크라보베치의 휘슬이 한 번이라도 울렸다면 경기의 흐름은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유도, 펜싱에 이어 축구에서까지 ‘심판 불운’에 또다시 고개를 떨궜다.

8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축구 준결승서 한국은 브라질에 0-3으로 저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력 면에선 나쁘지 않았지만 심판 판정의 아쉬움과 골키퍼 정성룡의 부상에 따른 전력 누수로 인해 결국 완패하고 말았다.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을 맞아 지금까지의 경기와는 달리 변형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박주영을 빼고 지동원과 김현성을 투입으로 활용하는 4-4-2 전술을 선택했다. 구자철과 기성용을 중앙 미드필더에, 좌우 측면엔 김보경과 남태희가 나섰다. 포백엔 윤석영 김영권 황석호 오재석, 골키퍼는 영국전에서 부상을 당한 정성룡 대신 이범영이 선발 출전 했다.

전반 주도권을 잡은 것은 한국이었다. 지동원의 중거리 슈팅을 시작으로 11분에는 기성용의 왼쪽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이 김보경과 남태희에 이어 김현성의 슈팅으로까지 이어지며 브라질 문전을 위협했다.

한국은 13분에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지동원의 절묘한 찰사 패스를 받은 김현성이 헤딩으로 연결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동원이 다시 헤딩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수비

수가 발을 높게 들어 공을 걸어냈다. 일반적인 관정이었다면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여 페널티 킥 혹은 최소한 간접 프리킥이 줘졌어야 했지만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이후 브라질 윙백 마르셀루의 드리블과 패스가 살아나면서 경기 주도권이 브라질로 넘어갔다. 19분에는 결정적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와일드카드 김창수 대신 오른쪽 윙백에 투입된 오재석이 백패스 실수로 위기를 자초해 골키퍼 이범영이 무릎을 다치고 말았다.

38분 0-0의 균형이 무너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오재석의 패스를 가로챈 브라질의 공격이 호물투의 슈팅으로 이어지며 선제골을 빼앗겼다. 골키퍼 이범영이 쉽게 막을 수 있는 평범한 슈팅을 다리 사이로 빠트려 아쉬움이 컸다. 와일드카드 김창수와 정성룡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점유율 58% 대 42%로 앞선 경기를 하고도 0-1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시작한 후반전. 한국은 시작부터 브라질을 압박해 3분 만에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잡았다. 윤석영의 절묘한 스루패스를 이어받은 김보경이 브라질 진영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결정적 장면이 나왔지만 주심은 또다시 휘슬을 불지 않았다. 김보경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슈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이었다. 관중석에서도 “우~” 함성과

탄성이 이어졌다.

경기 후 브라질의 최대 언론 ‘글로부’조차도 “후반 3분에 김보경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산드루에게 파울을 당했지만 체코 출신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런 상황에 대해 “주심 파벨 크라보베치가 페널티킥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도했고 미국 폭스스포츠와 영국 스카이스포츠도 한국이 적어도 1개의 페널티킥은 얻어야 했으며 심판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와 문도 데포르티보도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었다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브라질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 했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한국은 이후 사기가 크게 꺾였고, 12분 브라질의 다미앙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다. 브라질은 마르셀루와 네이마르가 패스를 주고받으며 한국의 왼쪽 측면을 허물었고, 다미앙이 깔끔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두 번째 골을 뽑아냈다. 승부는 사실상 여기서 끝났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13분 구자철을 빼고 정우영을 투입해 일본과의 3.4위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후반 19분 네이마르의 패스가 한국 선수의 발에 걸릴 뻔 했지만 다미앙에게 연결되면서 세 번째 골을 허용, 완전히 무너졌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7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남자축구 준결승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 지동원이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더 뛰어줄 선수 필요해 박주영 제외”

홍명보 한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 감독은 7일(현지시간) “공격과 수비에서 더 뛰어줄 선수가 필요해 박주영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이날 런던올림픽 남자축

구 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완패하고서 이같이 말했다.

홍 감독은 “박주영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며 “포워드로서 공격과 수비에서 더 뛰

어줄 선수가 필요해 컨디션이 좋은 김현성을 대신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후반에 주장 구자철을 빼고 정우영을 투입한 까닭에 대해서 “수비에 빈틈이 자주 생겨 공격적

인 구자철을 빼고 수비에 강점이 있는 정우영을 넣었다”고 답했다.

경기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감독은 “처음에는 좋은 리듬으로 경기를 시작했고 기회도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며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체력 회복이 관건

일본과 라이벌전 앞두고 휴식 ... 결전지 카디프로 이동

11일 3시45분 운명의 대결

‘체력을 회복하라!’ 어렵게 사상 첫 올림픽 결승 진출의 기회를 놓친 홍명보호(號)가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결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의 체력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8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그레이트 스몰 훈련장에서 예정된 오전 훈련을 취소했다.

대표팀은 그동안 경기를 치른 이틀 낱에는 회복훈련을 해 주전 선수들의 지친 몸을 풀어주고 벤치 멤버들의 볼 감각을 유지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이날 예정된 오

전 훈련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대표팀은 영국과의 8강전에서 연장 혈투와 승부차기까지 치러 상당한 체력을 소모했다.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는 후반부터 선수들이 급격히 지치면서 연속골을 내줬다. 브라질 감독조차 “한국이 8강전 이후 매우 지쳤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선수들의 체력은 5경기를 치르는 동안 고갈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45분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예정된 일본과 3-4위전을 앞두고 체력 회복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숙소에서 가벼운 물 풀기와 휴식으로 피로를 달랜 선수들은 숙소에서

점심을 먹고 버스편으로 이번 대회 4강 진출의 기쁨을 맛본 웨일스의 카디프로 이동했다.

‘아시아 축구 지존’을 가리는 이번 한일전은 자존심 대결뿐 아니라 사상 첫 메달 획득을 향한 중요한 일전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948년 런던 대회 이후 64년 만에 사상 첫 4강 진출의 드라마를 연출, 선배들이 이뤄 내지 못한 커다란 업적을 세운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지만 선수들은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승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일본과의 3-4위전 승리로 씻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 대표팀에는 일본 무대 경험에 풍부한 ‘지일파’ 선수들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현역 시절 일본 J리그에서 활약했고, 최근 이적을 마친 주전 공격수인 김보경(카디프시티)과 중앙 수비수 김영권(광저우恒大)도 일본 무대에서 뛰었다.

또 김영권과 중앙 수비수로 ‘찰떡 호흡’을 맞추는 황석호는 산프레체 히로시마, 백업 공격수인 백성동은 주빌로 이와타, 중앙 미드필더인 정우영은 교토 상가에서 각각 활약하고 있다.

한편 3-4위전을 이기면 따라오는 ‘당근책’도 솔깃하다.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포상금 15억2000만원을 받는 동시에 해외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병역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포상금은 선수별 활약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4000만원~7000만원까지 나눠주고 감독에게는 1억원이 주어진다. 대표팀은 이미 4강 진출을 통해 총 8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WWW.MILLET.CO.KR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엄홍길 대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오르십시오!

밀레 기술포토

엄홍길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조)
-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 주최 : / 주관 : Mtour / 후원 : 광주일보사

네번째 산행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주차장-황룡사-삼미골재-삼도봉 정상(1,176m)-삼미골재-주차장 (원점회기: 왕복 12Km)] *일정 및 등산코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섯번째 산행은 덕유산입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아울렛	롯데아울렛광주수원점 062-616-2221 익산롯데아울렛점 063-838-9293 밀레광주아울렛점 062-385-5555 NC순천 061-726-5417	직영점
광주직영점 062-266-8948	대리점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광주청단점 062-973-7775 밀레광주진원점 062-674-5888 밀레광주무동점 062-225-2121 밀레광양점 061-793-2744 밀레광양칠성점 061-761-7524 밀레목포점 061-282-8523 밀레순천점 061-745-3068 밀레여수점 061-666-1921 밀레여천점 061-691-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752-3380 밀레군산수송점 063-445-4747 밀레군산경화동점 063-446-6828 밀레김제점 063-544-7651 밀레남원점 063-626-7889 밀레전주송천점 063-276-3031 밀레전주중앙점 063-225-0789 밀레전주중화산점 063-229-7676 밀레전주효자점 063-272-3668		